

불임클리닉 I

황경진 그레이스병원 원장

“나도 혹시 불임이 되지 않을까?”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 불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대개 여성의 10~15% 정도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임 가능성이 많아질까? 또 그에 대한 예방법은 있는 것일까? 앞으로 2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런 여성은 주의하세요(1)

♥ 심한 스트레스나 과격한 운동 혹은 다이어트로 영양상태가 불량할 때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는 젊은 여성에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과도한 육체적인 피로감이 쌓인 결과, 갑자기 무월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로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린 경우도 무배란, 무월경이 되면서 불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뇌에서부터 호르몬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배란기능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휴식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임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월경이 매우 불규칙하고 불순한 경우

여성의 자궁 양쪽에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회백색인 난소가 있어 매달 한 번씩 배란을 하게 된다. 정상인 여성은 월경 주기가 28~35일 정도로 배란이 규칙적으로 잘 일어난다. 불임 여성들 중에는 이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생리가 2~3개월 간격, 혹은 그보다 더 불순하여 심하면 6~12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경우도 있다. 생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성에 비해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여성들은 그만큼 배란되는 기회가 적고, 실제로 임

신이 잘 안 된다.

배란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를 총사령탑으로 하여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인 난포자극호르몬(FSH)과 황체화호르몬(LH)에 의해 조절 받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바로 여성의 배란과 월경,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

♥ 유방에서 젖이 나오면서 무월경 상태일 때

출산 후가 아닌데도 갑자기 유방에서 젖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다. 분비량이 많아 가만히 있어도 방울이 떨어질 때도 있고,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짜야만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프로락틴이라는 젖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검사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프로락틴은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데 증식이 일어나거나 종양이 있을 때 분비가 증가한다. 고프로락틴 호르몬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을 항상 평형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되먹임 작용'에 의해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떨어뜨린다. 그 결과, 난소에서는 배란이 안 되고 무월경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는 프로락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약제인 '부로모클립틴(팔로텔)' 약제를 써서 치료하면 배란이 순조롭게 되고 생리가 규칙적으로 나오게 된다.

♥ 초음파검사상 다낭성 난소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다낭성 난소는 초음파로 보았을 때 작은 낭포들이 구슬 목걸이처럼 보이는 난소를 말한다. 대개 성선자극호르몬인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화호르몬의 비율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들은 미리 검사를 받아보고 호르몬 조절을 받는 것이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낭성 난소증이 있으면 간혹 골다공증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만성적·전신적인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나 결핵, 만성 빈혈, 갑상선 질환, 간장 질환,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 배란 장애가 많고, 임신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불임 검사를 시작할 때는 꼭 일반적인 건강 체크를 함께 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시작해야 도움이 된다.

♥ 조기 난소 부전증으로 난소에서 전혀 배란이 안 되는 경우

대개 여성들은 50세를 전후로 하여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아주 젊은 나이, 즉 30대에 갑자기 월경이 끊기고 얼굴이 후끈거리면서 땀이 나는 등 갱년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호르몬 검사를 해 보면 난소 기능이 이미 끝나버려 배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조기폐경이 된 것이다.

간혹 배란 촉진제를 써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이 경우 임신을 원할 때는 난자 공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나팔관 촬영을 했을 때 양쪽 나팔관이 막힌 경우

과거에 임질 같은 성병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는 경우, 결핵을 앓고 난 뒤, 맹장이나 다른 원인으로 심한 복막염을 앓은 적이 있을 때,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을 때 양쪽 혹은 한 쪽 나팔관이 막힐 수 있다. 물론 전혀 이런 병력이 없더라도 막힐 수 있다.

나팔관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이곳을 통해 자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혔다면 당연히 임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팔관이 막힌 정도, 막힌 부위에 따라 수술요법이나 비수술요법으로 뚫어 준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 ☺